

네덜란드 수변집합주거의 건축적 신-유형에 관한 연구

안응희† · 오광석* · 전영훈**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중앙대학교 교수

A Study on Architectural New-Type of Netherlands Waterside Housing

Woong-Hee Ahn† · Kwang-suk Oh* · Young-Hun Jeon**

†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Joongang University

요약 : 지금까지의 집합주거를 살펴보면 건축의 역사를 통해 일반적 혹은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형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집합주거는 형태적으로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해양강국인 네덜란드에는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와는 매우 다른 집합주거 작품들이 많이 건립되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작품들의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둔다. 네덜란드의 독특한 집합주거들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임과 동시에 근대건축의 전형적인 형태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집합주거에 대하여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은 유형학적 측면에서 볼 때 건축적 신-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집합주거건축의 유형적 변화에 내재된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핵심용어 : 네덜란드, 수변, 집합주거, 건축, 유형, 형태적 변천

Abstract : If we think about the form of housing architecture, we can find a general or typical type has been through the architectural history. because the formal transformation in housing architecture is very difficult. Recently, there are many housing works in powerful ocean state, netherlands that was different from the typical type in the form of housing architecture. This study focusing on the formal characteristics in such works. Such distinctive works in netherlands is the result from an attempt to fulfill the diverse needs of our contemporary society and in an effort to refuse the typical type of the modern architectu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eaning of typological transformation in the contemporary housing architecture.

Key words : Netherland, waterside, housing, architecture, type, formal transformation

1. 서론

집합주거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기능주의적 집합주택부터 다양한 이론을 배경으로 한 집합주택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CIAM 해체 이후 집합주거를 주제로 더욱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져 왔다. 특히 유럽의 집합주거는 근대 이후의 흐름과 지역적 특성을 배경을 통해 대안적 사회주택의 공급에서 오랫동안 선두를 유지해 왔다.

지금까지의 집합주거를 살펴보면 일반적 혹은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형태가 존재한다. 집합주거는 형태적으로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제한성 때문에 다른 건축물보다 형태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변형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시설이다. 집합주거는 거주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구조적 효율성, 공간의 효율적 이용, 경제성, 규모의 특징상 도시적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타 시설에 비해 디자인의 제약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집합주거로서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네덜란드에 건립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집합주거는 국토가 부족하다는 지형적 특성의 독특한 상황에서 일찍이 발전된 까닭에 형태적 가속화가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집합주거의 형태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다. 독특한 형태로 건립된 이 집합주거들은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매우 달라서 낯설고 이질적이며 비정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네덜란드 집합주거를 건축적 유형의 맥락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연구의 대상은 집합주거건축의 일반적 특성과는 구별되는 형태를 담고 있는 건축물들이다.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집합주거의 형태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곧 현대건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내재하고 있다는 가설아래 그 변천의 단면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광범위한 현대건축의 변천과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절대 단순한 것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형태적 제약

† 교신저자 : 안응희(중신회원), ahnwoonghee@hhu.ac.kr 051)410-4585

* 정회원, tecton@hhu.ac.kr 051)410-4586

이 많은 집합주거의 유형적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합주거 건축물들은 한결같이 바다 혹은 강변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해양강국이고 잘 개발된 해양도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집합주거건축의 형태적 특징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건축적 유형으로써 ‘수변집합주거’를 규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설과 유형의 관계분석을 통해 현대건축의 의미를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2. 집합주거유형의 사회적 의미

주거는 선사시대 이래 지금까지 거주활동에 내재된 인간행위의 본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다양한 장소의 수많은 주거들은 그 자체의 주변맥락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변천해 왔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비록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가치관 그리고 지역성 등에 따라 수많은 주거들이 서로 구별되는 양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 거주활동의 공통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주거들을 묶어 ‘주거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통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주거(住居)의 개념은 어원상 dwell, house, home 등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내부적 형태를 지니고 개인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인 동시에 안식처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의 본거지로서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모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¹⁾

집합주거는 개개의 주거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군이 아니라 인위적인 계획에 따라서 집단을 이루어 공동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주거시설을 말한다. 때문에 집단적 성격과 도시적 규모라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이 명확히 반영된다. 또한 집합주거는 건축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근대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산물이기에 현대사회의 거주활동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집합주거의 개념은 근대 유럽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시설이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노동자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합주택이 대량으로 건설된 이래 주거건축은 ‘집합체’로서의 개념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집합주거의 본래성은 사회적 상황과 결합하여 특정한 유형으로 형성된다. 집합주거는 근본적으로 거주를 위한 것이지만 다른 주거시설과 구분되는 것은 도시화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집합주거는 특정 사회나 지역에서 선호되어 온 형태들이 축적되어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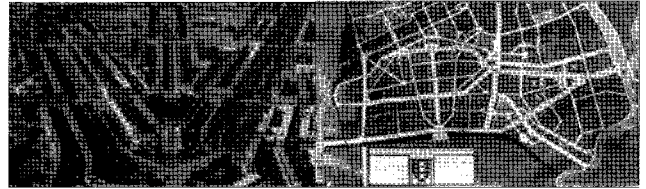


Fig. 1 H. P. Berlage, ‘Plan Zuid’, Amsterdam, 1902-20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변형하려는 의지는 그 시대의 가치관, 그것을 이루고 있는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있다.²⁾ 패러다임은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거주공간의 반영이면서, 역으로 패러다임이 거주공간을 개편한다. 패러다임이 정보의 질서라고 한다면, 거주공간은 인간을 둘러싼 물질적 질서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의식변화는 생활스타일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는 곧 거주 공간의 형태에서 드러난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20세기 초반 근대사회의 집합주거건축은 현대사회에 들어와 가치관의 다양화, 생활양식의 개성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풍부한 생활을 목표로 한 표준모델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사회로부터의 탈구축적 전략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Fig. 2 Michel de Klerk, Eigen Haard, 19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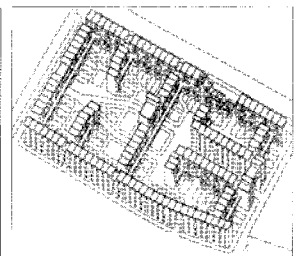


Fig. 3 Brinkman, Spangen Housing, 1919-21

현대 사회의 휴대전화, 인터넷, 고속열차의 개통 등과 같은 통신과 기술의 발달은 거주 공간에 대한 기존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도시의 확장 뿐 아니라 실제적

1) 포르테우스(Porteous)에 의하면 주거는 인간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는 현상적 환경의 기본 단위이고, 개인의 성격 태도 기호 가치관 경험 등에 의해 구성되는 행태적(behavioral) 환경과 경험적(experiential) 환경의 기본단위이며 또한 가족, 동일 생활양식 집단, 사회계층, 문화집단의 일원으로서 경험에 주로 영향을 받는 맥락적(contextual) 환경의 기본단위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주거는 거주자의 의·식·주생활과 사회생활의 양상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다.

2) Paradigm은 그리스어의 패러다임paradeigma에서 유래하는 말로 원래는 ‘규범’이나 ‘본보기’를 의미한다. 토마스 쿤Thomas Samuel Kuhn은 ‘과학혁명의 구조’(1922)에서 패러다임을 과학이론의 역사적 발전을 분석하는 열쇠로 도입하였다. 이후 현장의 과학 연구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해석방법을 도입하는 이론 방침 및 절차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논하였다. 분야에 따라 패러다임을 사고의 체계, 조직, 사물을 보는 방법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거 개념의 확장도 포함하는 것이다. 생산 판매 소비 등이 분리되어 도시의 다른 영역과 시설에 위치한 공적 생활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적 영역인 주거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현대의 주거 개념은 가족이나 친지들 간의 생활로부터 사회적 생활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현대의 대중사회는 대량(mass-)의 개념이 발전되어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규격화 획일화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밀집되는 특성을 보인다. 개인들 간의 관계는 네트워크체제로 인해 더욱 복잡적이고 다중심화 되며 공공의 개념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전자 네트워크로 인한 생활로의 변화는 공과 사의 경계를 바꾸며 변형시킨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를 1차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2차적이고 간접적이며 가변적인 관계로 정립된다.

이것은 곧 사회와 건축공간의 형식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축 공간과 형태가 일치하는 장소적 의미는 변화하고 있고, 특정한 물리적 경계의 감각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집합주거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집합주거의 공간적 형태적 변화와 같은 물리적 변화로도 이어진다. 현대사회에서 주거는 안식처이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업무·여가·문화 활동 등의 행태를 담아내야하므로 거주 내부에 적극적으로 도시적 요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집합주거건축의 형태적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주거의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건축의 공간적 형태적 맥락에서 본다면 동시대의 건축적 의미와 단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건축적 유형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³⁾ '유형'의 개념은 일련의 사례 또는 구체화된 형태들을 통하여 연역되는 것으로서 같은 필요에 의해 지어진 시설들의 통일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로 형태적·기능적으로 유사(analogy)한 일련의 건물들의 존재에 의존한다.⁴⁾

유형을 규정한다는 것은 건물의 개별적 형태들을 비교하고 겹치는 과정에서 각각의 특성들을 제거하고 공통적인 단위를 남겨 통합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유형은 형태적 다양성에 대한 공통된 형이상학적 형태이며 이미지, 기억, 역사적 연속성 등을 상기시키는 재현적 구조의 형태언어이다.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장 풍부하고 변화무쌍하지만 건축의 영역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전형적인 그리고 나아가 대표적인 유형이 집합주거건축이다. 왜냐하면 동시대라는 시간적 그리고 지역적 맥락인 공간적 제약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설로서의 건물을 건축의 유형으로 보는 것은 인간이 사회와 관련을 맺는 장소로서 본래의 목적에 대해 살피는 것이다.

유형은 건축의 인식 영역과 실행영역을 형태의 측면에서 일체화시키는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은 집합주거를 다른 시설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집합주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합주거건축의 유형적 특징을 살펴본다면 크게 ① 개별요소의 반복 ② 동질요소의 통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반복과 확장성

집합주거의 공간과 형태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주거단위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이를 반복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세대가 기본 단위가 되어 동일하게 반복되어 집합체가 된다. 집합주거는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각 주호들에 동일한 거주 환경을 제공해야하므로 집합주거의 공간들은 연속적이며 규칙적인 배열을 취한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입면 상에서 반복성이 강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벽체상의 창문이 이질적이라도 창들의 비례와 벽체에서의 위치 그리고 벽체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공통점으로도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반복성은 단지 기능적 필요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성은 전체 건축형태에 있어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 원리로 사용된다. 또한 통일성은 집중화된 디자인으로서 형태적 통제의 산물이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에서 경계가 없거나 분명한 시작과 끝이 없을 경우 혼란스럽게 된다. 이는 전체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한 채 디테일에서만 일관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 재료와 재질의 통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강화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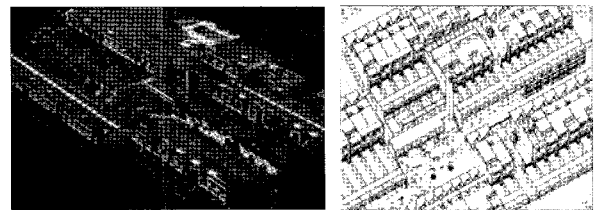


Fig. 4 Atelier 5, Halen Housing, Bern, 1961

공동주택단지에서 동일한 주거동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근대건축운동이 시작된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중정형 주택이 일반적이던 시기에 근대건축운동을 주도하던 르 꼬르뷔지에, 그로피우스 등의 건축가들은 합리적인 주거형식으로 일자형 주거동을 제시했으며, 일자형 아파트와 그것의 반복적 배열에 의한 주거단지 구성안은 20년대와 30년대 초반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시행되었다.

3) 유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성질이나 특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철학에서는 유개념의 하나로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닌 어떤 현상의 공통적 성질을 형상으로 나타내며, 추상적인 보편성과 개별적인 구체성이 통일되어 있는 것을 이른다. 퀴시(Quincy)에 의하면 "유형(type)"은 model, matrix, imprint, mold, figure 등을 의미하는 일반적 수용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Quatremere de Quincy, Type, oppositions.8

4) Giulio Carlo Argan, On the Typolog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no 33, 1963

1930년대 이후 유럽의 대도시 주변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에는 일자형 아파트가 반복 배치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계획방식의 배경에는 일조조건 개선과 넓은 외부공간, 도로의 축소로 인한 경제성 획득 등의 이점이 작용한 것이다. 이 주거동과 단지계획에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계획적 조건들이 내재하고 있다.

주거동을 반복 배치하는 방식은 설계상의 효율의 문제뿐 아니라 공간의 형평에 대한 해결이다. 주거의 반복배치 방식에 대한 특성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계획의 특성과 배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즉 주거동을 반복 배치하는 방식이 폭넓게 확산된 배경에는 각 세대가 동일한 조건의 단위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효율’과 ‘형평’은 집합주거의 동일한 요소가 반복되는 방식의 핵심요인이다.

② 군집과 통합

집합주거건축의 형태는 공간의 기능적 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단위세대가 기본 단위가 되어 동일한 요소들끼리 통합된다. 각기 다른 주거유형을 결합하게 되면 외벽의 요철이 심해지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외관도 산만해진다. 때문에 집합주거는 단위세대가 동일한 요소들끼리 통합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간결하게 이용함으로써 외부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거주환경의 조성으로 커뮤니티형성에도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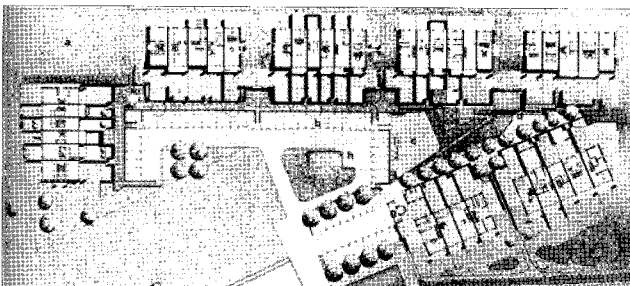


Fig. 5 Franz Oswald, Bleiche 주거단지 Worb 지구, 1977-1981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요소와 건설방식을 반복하고, 정렬하면서 집합주거건축물에 질서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집합주거는 건물 구성의 산업적 대량생산(mass-production)의 기초하에 발전되어왔다. 각 개별 요소들은 포괄적 구조로서의 주호로 생산되었다. 이런 점은 구조적인 치수나 크기에 있어 매우 제한된 모듈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적 요소들은 독립된 부류(창호, 기둥, 보, 벽돌, 설비, 재료 등)로 체계화 되어왔다. 집합주거의 설계과정에서 modular coordination은 건축물의 미적 질서를 갖게 한다. 집합주거에서의 모듈러 코디네이션은 구조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구성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설계방식이다.

또한, 블록의 형태로 각각의 단지들이 연결되고 있으며, 주거사이에 출입구와 계단실 등 공용시설을 공유하는 형태의 배치

가 일관적으로 나열되어있다. 그 결과 표준화된 모듈과 건설부제에 의한 단순한 반복이 형태를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건축가들은 비례나 스케일, 빛, 그늘, 세부 등에 대한 세세한 디자인들을 통해 다양성을 부가하였다. 이와 같이 추상화된 형태는 계몽적인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사회의 정치와 이념, 사회적 구조, 기술 등의 영향과 집합주거건축의 근본적 성질은 각각 다른 지역들, 다른 건축가에 의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으로 공통된 속성을 나타나게 하였다. 주거의 대량생산과 보급, 건설의 효율성을 근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집합주거건축의 개발은 공업사회의 기술이나 가능성, 가치관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상황에 따른 합리성과 효율성, 형평성 도시 맥락적 구조를 따르는 것이 집합주거의 형태유형을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해왔으며, 그에 따른 반복적, 동질요소간의 통합적 형태 특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되고 선호되면서 일반적인 이미지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현대 집합주거건축의 새로운 유형

양식과 체계의 변화는 건축의 유형을 형성하는 형태요소의 개념에 대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표현체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형은 실용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요구의 총체성에 대한 대응에서 형성된 명확한 표현의 도식(schema)으로 간주되어왔다. 현대의 복합적 다층적 문화와 기술적 발전 등은 건축의 범위에 새로운 유형을 요구하고 있다.

4.1 매개공간의 소멸 : 사회적 변화

집합주거는 개인의 영역과 외부영역에 명확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역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영역과 구분해 준다. 집합주거의 외부공간은 공공성을 가지므로 개별주호에 외부공간을 제공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밀도가 높으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생기며 위계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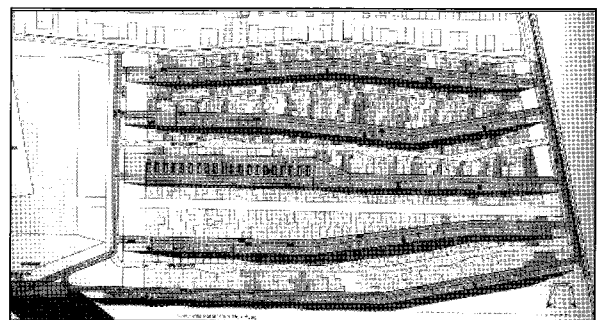


Fig. 6 NL Architects, Roof Road NT, The Hague, 2001

VINEX 주거개발에 의해 진행된 네덜란드 근교 Hague 주거단지인 NL Architects의 Roof Road NT 계획안에서 모호한 경

계가 잘 드러난다. 계획의 목표는 도주거단지에 최대한 자동차를 억제하는 것이었으며,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유입되는 차량이 많을수록 외부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통여건으로 볼 때 불가피하게 더 많은 차량공간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 Roof Road NT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면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접근 도로와 주차공간을 집합주택의 지붕 위로 올리고 도로와 주택을 결합시킴으로써 전체 면적을 25% 증가시켜 더 넓은 외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거단지 전체 공간구성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내·외부 경계가 되는 단위주호와 외부 사이에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접근체계가 압축 혹은 생략되었다.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의 사이의 완충공간(buffer zone)인 개별정원은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도로에서 바로 개별공간으로 진입하게 되어 주거의 개별성(privacy)이 크게 손상되었다. 또한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내·외부 공간을 단순하게 연결할 뿐이기에 집합주거 블록은 한쪽방향으로만 연결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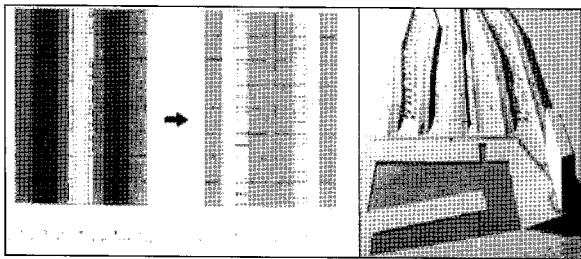


Fig. 7 NL Architects, Roof Road NT, The Hague, 2001

중간영역의 부재 즉 주체와 객체의 직접적 연결이나 모호한 경계는 현대인의 생활에 대응하여 건축시설이 따라간 사례가 된다. 이동수단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공간적 시간적 확장을 가져온 반면, 장소-장소, 생산자-소비자, 주체-객체 사이의 경계나 위계를 무력화하였다.

이러한 무력화는 오늘의 사회에서 도시나 건축물을 고정된 경계나 시설들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⁵⁾ 경계의 공간 대신 도시를 대상으로 사람과 정보의 흐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주된 요소가 된다. 이 경우 건축의 유형이나 패턴 혹은 도시적 맥락은 중요하지 않다.⁶⁾ 대표적 상업시설인 창고형 할인매장, 키오스크형 매장은 현대 도시에 내재해 있는 물류 및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간영역이 단축된 사례이다.

4.2 반-통합과 단순 병치

오늘의 공동사회는 개별적 인간관계가 복잡적이고 방대해짐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소수집단의 특성을 강

조한다. 집합주거의 형태도 자연스레 변화하였다. 대량 생산(Mass-Production) 중심의 집합주거건축은 오늘날 대량 주문(Mass-Customization)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현대 집합주거건축은 일률적인 개별 공간의 통합적 형태를 배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반적인 집합주거는 적층 형태이다. 구조적 안정성, 시공상 효율성, 설비시설의 간결함 등 때문이다. 또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체 주호에 동등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지각적인 차원에서 전체 매스에 대한 간결함과 일관성, 입면의 반복적이며 규칙적인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형태적 질서는 건물이 중력에 순응하여 서있다는 느낌을 통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중력은 구성상의 균형을 지배하는 근본 요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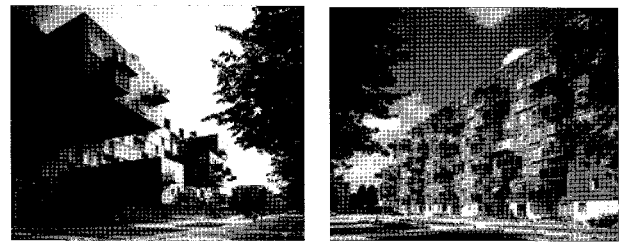


Fig. 8 MVRDV, WoZoCo's Apartments for Elderly People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들은 조건들의 정당함, 자연스러운 평형감, 구조적 안정감을 지각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수직적 이미지는 '거주함'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거주함'에 있어서의 안정적 이미지에 대해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집의 수직성을 통해 설명한다. '집'은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나 또는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이다... 집은 수직적인 존재로 상상된다. 집은 위로 솟는 것이다. 그것은 수직의 방향에서 여러 다른 모습들로 분화된다. 그것은 수직성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에 호소하는 것의 하나이다.⁷⁾ 이에 따르면, 세워져있는 공간은 사람의 심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영역으로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WoZoCo 집합주택에서의 형태 구성에서는 일반적 집합주택에서의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Fig. 9 Un Studio, Water Villa s, Almere, 1999-2001

5)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한나래, 1998, p.97
 6) 정인하, 현대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7) Gaston Bachelard, 팍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WoZoCo 집합주택의 큰 특징은 돌출된 유닛이다. 이것은 기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트러스 구조도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여 과도한 돌출형태를 하고 있다. 이 형태에서 집합주거의 속성인 구조적 공간적 효율성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유닛의 3면 이상이 외기에 면하여 냉난방 부하가 늘었으며, 배관 등의 설비시설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돌출된 유닛은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거주자에게 구조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주게 된다. WoZoCo 집합주택은 안정성이 결여되어있는 형태로써 '집'의 수직성이 파괴되어 공포감이 극대화된 공간에서도 거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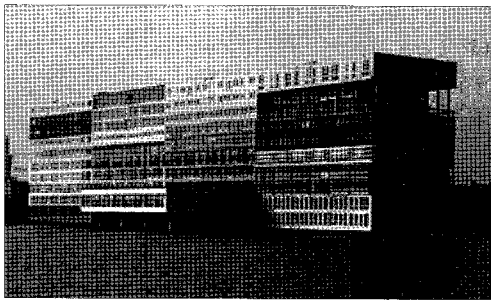


Fig. 10 MVRDV, Housing Silo, Amsterdam, 1995-2002

이러한 형태적 특성을 통해 각각의 개별적 주호의 아이덴티티는 극대화된다. 각각의 개별 주호의 환경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공간적 구성은 통일되지 않아 개별적 특성이 강조된다. 현대 집합주거건축에서 거주자의 안정감, 균등한 환경, 설계·시공의 효율성 등 보다도 건물의 조각적 형태를 통한 상징성과 아이덴티티가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을 통합된 형태 안에서 분절하거나 개별적 요소를 전체에 통일시키는 것 보다는 서로 다른 유닛을 노출시켜 전체 속에서 개별적 요소를 부각시킨다. 개별 요소를 통합하는 위계나 규칙이 보이지 않으며, 구성 요소가 그 자체로서 공존하여 개별적 요소로서 존재한다.

4.3 탈맥락적 아이콘

Deventer의 Het Baken의 집합주거 블록의 형태는 일반적인 집합주거로서의 유형과는 매우 다른 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건물은 22개의 주호와 탁아소를 제공하는 매시브한 형태와 표석, 석판의 표피를 가진 비대칭적 큐브로 나타난다. 각 개별 주호의 진입도 일관되지 않고 공간 이용의 효율도 떨어진다. 공간구조에는 큰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외벽이 기울어져 있으며 방의 모퉁이가 예각으로 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특히 벽이 수직으로 서있지 않다는 점은 현대의 거주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합주거와 같은 수직·수평성을 깨고 구조적 긴장감을 주는 형태나 곡선을 사용하여 주변 맥락과 이질적 이미지를 줌으로써 특별한 상징성을 확보한다. 형태적 변형을 통해 주변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홀로 존재하는 '이질화(differentiation)'를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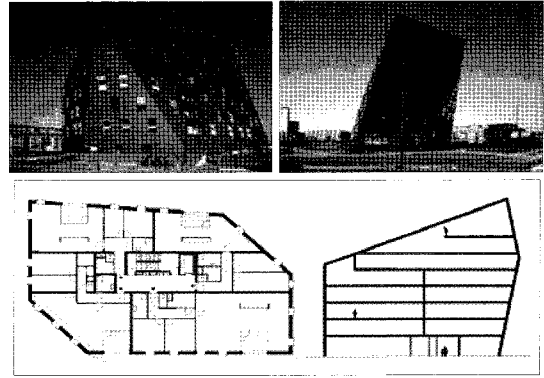


Fig. 11 KCAP, Het Baken, Deventer, 2002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복합화, 개별적 요구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프로그램 간 이질적 요소의 혼재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집합주거에서 볼 수 있는 개별적 요소들의 통합을 통한 통일성과 대립되는 상황으로 각 요소들의 차이를 만든다. 전이공간을 제거 또는 이질적 요소들을 혼재시켜 공간 구분 소멸, 정보공유, 혼성된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합주거 내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지역의 특성이 되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Amsterdam의 The Whale의 두드러진 배치와 사선형 매스는 의도적으로 컨텍스트를 회피한다. 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디자인 하여 블록의 중심부까지 빛이 들어오고, 건물의 양 측면이 들어 올려져 저층에서도 건물하부로부터 유입되는 햇빛을 받는다는 것이 의도이다. 즉 어느 위치에 있는 방에서도 빛을 빠짐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 이러한 매스는 건물 상하부의 단부에 다양한 주거유형이 생겨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각 위치마다 다른 조망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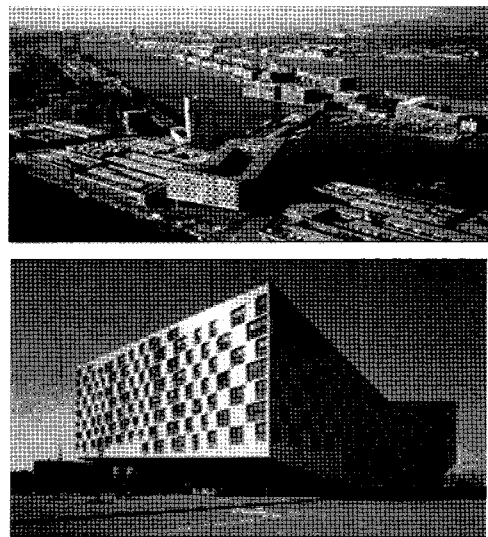


Fig. 12 de Architekten Cie, The Whale residential, Amsterdam, 2000

건물이 추가 되어 주거를 수용할 목적으로 대지 또는 장소를

변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환경의 조건들이 건물을 변형시키는 것이며 건축은 자연의 힘들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한시적 생활이 수용된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간 자체가 생활의 협조를 받아 순간의 특유의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공간으로 진입한다기보다는 공간과 생활이 일체화하여 안정될 때까지 갈등상황을 만들어 낸다.

건축 형태의 추상성과 모호성은 현대사회의 미학에 대한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만프레도 타푸리는 우리가 흔히 근대 건축이라 칭하는 것을 해석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20세기 건축을 포괄하고 있는 현대의 경험은 다원적 다형적 복잡한 경험의 해석이라고 말한다. 20세기 건축의 다양한 경험은 내재적인 복잡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근대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 과학 건축 등의 현실은 보편적인 합리성에 기초하여 구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 즉 보편적 체계를 확립할 수 없게 된 현대의 상황에서는 절대적 참조체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4 이탈(Exodus)의 미학

현대의 상황에서 미학적 경험은 현실 속에서 풍요롭고 활기찬 진정한 경험을 준다. 모탈레스에 의하면 충만하고 생기있는 경험 자체로서 감각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현실이 강력하게 융합되는 것, 그것이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⁸⁾

현대의 대중사회와 예술의 관계에서 예술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선호, 예술 이미지들에 대한 대량의 소비, 이와 같은 것들은 점증적으로 현대인의 여가시간이 늘어가는 사회를 반영하지만 또한 서로 다른 시점, 가장 다양하고 이질적인 상황에 의해 생산된 경험들로부터 지각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학에 대한 이해는 유약하며 주변적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형(type)은 형태적 다양성에 대한 공통된 형이상학적 형태이며, 이미지, 기억, 역사적 연속성을 상기시키는 인습적인 형태 언어이다. 집합주거의 형태적 유형으로부터 이탈은 인간이 인습적으로 지각해왔던 집합주거시설의 공통적이며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 '이해'된 형태와 이질적일 때 느끼는 지각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르다' 또는 '새롭다'라는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느끼는 '차이'는 역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적 '구조 틀'과 관계하여야만 확인될 수 있다.

차이는 어떤 대상의 특정한 조건을 밝혀준다. 그래서 각 대상의 특이성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여러 개체들이 하나의 동일성 속에 포함되기보다 각기 복수화(複數化)된 상태로 존재할 조건을 부여하며, 삶의 다양성을 그 자체로 긍정하게 한다. 각각의 개인, 주체, 혹은 예술 작품의 특정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의 차이들이다. 주어진 상황이나 대상에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이에 그 토대를 둔다. 차이의 인식은 복수적 문화로 유도한다. 복수적인 문화는 차이들을 자신

의 모습, 자신의 뚜렷한 윤곽, 자신의 특성으로 만드는 문화이다. 건축의 현재 상황을 차이들의 문제로 기술하려는 접근방식은 복수성을 출발점으로만 아니라, 동시대 현실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단편도 다양성 중의 하나로 위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한 시대, 한 지역을 지배하는 주거의 어떤 "유형"에 크게 열린 유연성을 강조한다.

이탈(離脫, exodus)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일'을 뜻한다. 그 어원은 기독교 성서의 출애굽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기존 세력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위해 탈출한 사건에서 유래하며, 현대 건축의 유형학적 관점을 통해 볼 때 이탈(exodus)이라는 단어는, 유형과 같은 기존의 체계, 형식은 표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과,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요소가 자의적으로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맥락을 같이 한다.

새로운 형태체계가 도입되었다 해도 당연히 당분간은 개별적 요소가 두드러져 보인다. 전체가 지닌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의식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개별적 대상은 여전히 하나의 특수 존재로 여겨져 전체 안에서 두드러지게 마련이다.⁹⁾ 이를 유형에서의 이탈로 볼 수 있으나, 각각의 변형된 형태는 그것의 형성과정의 맥락 속에서만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습적인 것을 비인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평범한 대상들을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배열하며, 친숙한 요소들을 친숙하지 않은 맥락 속에 놓음으로써 이것들이 옛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들로 지각되는 것이 가능하다.¹⁰⁾ 그 결과 하나의 새로운 제안이 되며, 그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그 유형의 지속성에 있어서 일련의 시리즈를 형성할 수 있다.

4.5 수변집합주거의 수용성

지금까지 거론한 네덜란드의 집합주거건축물들은 모두가 바다나 강에 인접한 땅에 건립된 프로젝트들이다. 암스테르담 자체가 국제적인 해양도시로서 풍경적 요소나 건축적 요소가 강한 인상을 주는 명소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WoZoCo에서 Housing Silo, The Whale, Water Villa, Block 16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모두 물에 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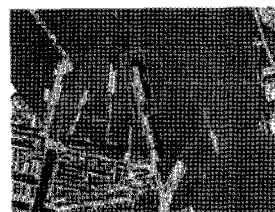


Fig. 13 Housing S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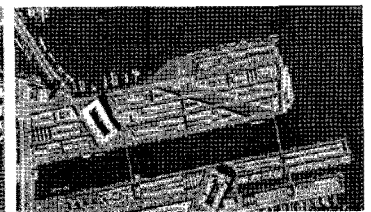


Fig. 14 The Whale

이러한 대지조건에서는 당연히 내부에서 외부로의 전망은 물론 외부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적 영역도 개방적이다. 따

8) Ignasi de Solà-Morales, Weak Architecture, Difference: Topographi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96

9) Heinrich Wölfflin, 미술사의 기초개념/ 박지형 역, 시공사, 1994, p.259

10) R. Venturi, Robert Venturi, 1966, p.45

라서 주변의 도시적인 물리적 맥락 보다는 시각적이고 경관적인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거주민들의 정체성은 물론 현대적 감각의 형태 요소가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집을 고려한다면 1900년대 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블록형 집합주거의 유형이 오히려 부적합할지도 모른다. 대지의 새로운 조성, 입주자를 위한 부가가치의 창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한다면 의도적으로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형태가 요구되는 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물에 접해 있다는 것은 고층빌딩이 준비하고 오로지 건물의 파사드만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내륙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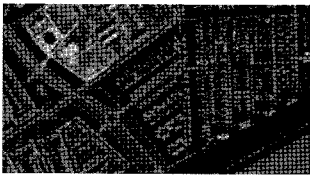


Fig. 15 Water Villa



Fig. 16 Block 16

이러한 맥락에서는 형태적 과장이나 독특한 색채와 재질은 물론 심지어는 기괴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형태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수용 가능한 맥락이 바로 수변의 대지조건이다.

기본적인 안정적이고 정숙한 주거단지와는 대조적으로 태양과 바람 그리고 습기와 염해 등이 더 크게 작용하고 그런 조건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건축적 의미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이런 대지조건은 해양건축의 근본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5. 결 론

1900년 이후 최근에 이르는 네덜란드의 집합주거건축 사례의 유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가운데 유형적 이탈이 드러나는 집합주거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집합주거건축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가장 많이 구속되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의 유형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현대의 기술공학, 정보, 통신, 교통 등의 발전과 현대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층 문화적 변화는 현대인의 생활방식을 복합적이고 탈 중심화로 이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주에 대한 개념적 변화는 주거시설의 새로운 가치와 형식이 도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집합주거환경은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근대건축 초기의 양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근대 건축가들도 인간의 자유와 정체성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는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창출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관련된 오늘날의 작업은 기능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변화하였고, 지역적인 특성을 주거환경의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 속에 집합주택에서는 획일적인 대량공급에서 탈피하여 개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로 요약된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매개공간의 소멸-사회적 변화, 반-통합과 단순 병치, 탈맥락적 아이콘으로 요약되는 이 모든 것들은 유형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한 미학적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조건과 주거시설의 건축적 유형의 견지에서 하나의 현대적인 신-유형이 성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집합주거의 건축적 신-유형이 생성되거나 혹은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다나 강을 배경으로 하는 수변건축의 특성상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인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유형으로부터의 이탈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나, 유형의 범위가 더 넓어지며, 복합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 변화는 일련의 유형을 토대로 한 변형의 '맥락'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형태체계가 더욱 확장됨을 의미한다. 현대의 건축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극도로 다양한 형태적 특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건축의 유형의 이탈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인식적 변화로 인한 건축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건설교통부(2000), "고밀형 중층 공동주택의 설계기준 및 기법에 관한 연구".
- [2] 문은미(2005), "네덜란드의 도시 네덜란드의 주거", 발언.
- [3] 전남일(2005), "네덜란드의 건축가 네덜란드의 주거", 발언.
- [4] Heinrich, W.(1994), 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 박지형 역, 미술사의 기초개념, 시공사.
- [5] IBA, "베를린 국제건축전", A+U, 1987.
- [6] Aldo, R., Architecture of the City.
- [7] Anthony, V(1977), "The Third Typology: Oppositions7".
- [8] Bart, L.(2003), What is (really) to be done? : Reading MVRDV ed. Véronique Patteeuw, NAI.
- [9] Bernard, T.(1996),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 [10] Giulio, C. A.(1963), "On the Typolog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no 33.
- [11] Rafael, M.(2004), "the work of 8 contemporary architects", MIT Press.
- [12] Rem, K.(1978), "Deliriou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8.
- [13] Rob, K., Architectural Composition.

원고접수일 : 2009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 2009년 5월 14일
 원고채택일 : 2009년 6월 29일